



양키스맨 찬호, 승부처에서 빛났다

완벽 제구 1대1맞선 7회말 등판 30이닝 1안타 무실점
 보스턴 상대 시즌 첫승, 통산 121승...추신수 멀티히트

뉴욕 양키스의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박찬호(37·뉴욕 양키스)가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박찬호는 8일(한국시각) 미국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경기에 1-1로 맞선 7회말에 등판해 9회까지 3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구원승을 올렸다. 보스턴과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던 양키스는 연장 10회초 커티스 그랜더슨의 홈런 등이 터지면서 박찬호에게 승리를 안겼다. 양키스 3-1 승. 박찬호는 이날 승리로 메이저리그 통산 121승째를 올렸다. 앞으로 3승만 추가하면 노모 히데오(123승·일본)가 갖고 있는 아시아 선수 최다승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박찬호는 30이닝 동안 안타는 1개만 내렸고 삼진 1개를 걸었다. 5일 보스턴과 개막전에서 홈런을 얻어 맞으며 패전투수가 된 박찬호는 이날 호투 덕분에 27.00까지 치솟았던 평균자책점을 4.91로 끌어내렸다. 또 데이비드 로버트슨, 조바 챔벌레인과 함께 '승리 계투조'에 포함된 박찬호는 조지 라디 양키스 감독의 신뢰에도 보답하며 팀내의 입지도 굳혔다. 단순한 이닝 볼펜 투

수가 아니라 여러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볼펜 투수'로 거듭나고 있다. 선발 엔디 페이트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는 이날 위력적인 변화구로 타자를 요리했다. 120km대 커브와 140km대 슬라이더를 잘 섞어 던져 상대 방망이를 쫓아냈다. 첫 타자 마르코 스쿠타로를 시속 127km짜리 커브를 던져 우익수 뜬 공으로 잡아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제이코비 엘스베리에게도 볼 카운트 1-1 때 타자 앞에서 푹 떨어지는 143km짜리 슬

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해 투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이어 150km에 육박하는 싱커를 던져 엘스베리를 중견수 플라이로 속아냈고, 더스틴 페드로이아는 중견수 뜬 공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날 피칭의 하이라이트는 8회였다. 3번 비터 마르티네스, 4번 케빈 유킬리스, 5번 데이비드 오티스로 이어지는 보스턴 클린업팀을 3타 범퇴로 막았다. 마르티네스에게 커브를 던져 2루수 땅볼로 유도한 박찬호는 유킬리스는 중견수 뜬

공으로 잡아냈다. 이어 140km짜리 슬라이더로 오티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9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는 에드리안 벨트레를 우익수 뜬 공으로 잡아냈으나 JD 드루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어진 마이크 캐머런과 스쿠타로를 나란히 좌익수 뜬 공으로 속아내면서 한숨을 돌리고 연장 10회말 마리아노 리베라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한편 6일 개막전에서 삼진 3개를 당하며 부진했던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2안타를 몰아 때렸다. 추신수는 8일 시카고 US셀룰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 3타수 2안타에 2득점을 올렸다. 경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5-3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양키스 가치 1조7936억원 MLB 구단 자산 평가 13년 연속 1위

박찬호(37)가 뛰는 뉴욕 양키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자산 가치 평가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8일(한국시각) 해마다 발표하는 메이저리그 구단 가치 평가에서 양키스의 가치가 무려 16억 달러(한화 약 1조79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키스 구단의 가치는 지난해보다 약 7% 가량 늘어났으며 2위 보스턴 레드삭스의 가치인 8억7000만 달러(약 9753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수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키스는 이로써 13년 연속으로 이 조사에서 1위를 지켰다. 16억 달러 가운데 마켓 부문이 8억3900만 달러(약 9405억원)로 가장 많은 부분

KIA 새용병 '찜'... 마운드 새판 짬다



MLB 오클랜드출신 정통파 라이트 영입
 다음주 6선발 체제 정상 가동... 불펜 여유

호랑이 마운드가 새 징용을 갖는다. KIA 타이거즈가 8일 미국 출신의 우완 정통파 투수 매트 라이트(Matt Wright·29·우투우타)를 계약금 4만 달러 연봉 21만 달러 등 총 25만 달러에 영입했다. 신장 192cm, 몸무게 122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라이트는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소속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리그에서만 10시즌을 활동했다. 166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59승 60패 3.9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메이저 경력은 없지만 3년 연속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 초청을 받는 등 기대주로 인정받고 있다. 140km 후반대의 직구를 보유한 라이트는 볼이 묵직하고 무브먼트가 좋다는 평가다. 안정된 제구와 매서운 볼끝을 선보이며 KIA 스카우트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빠른 한국 야구를 상대할 수 있는 '수비력'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라이트는 빠른 킥 모션과 수준급 주자 견제 능력으로 발 빠른 주자들이 많은 한국 무대에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8년 KIA에 합류했던 용병 데이비스는 150km대의 강속구, 매서운 변화구와 안정된 제구력을 보유하고도 킥모션과 주자

견제 능력 등에서 문제점을 보이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다. 새 용병이 최종 결정되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KIA는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로드리게스와 이대진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6선발 체제를 놓고 고심을 했다. 하지만 어깨부상으로 우려를 모았던 윤석민이 정상 운동을 하고 있고, 팀에 시즌 첫 승을 선물했던 서재용이 완벽한 컨트롤로 1승을 사냥하는 등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마운드를 방어해 주면서 큰 무리 없이 선발 로테이션이 가동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범현 감독 400승 고지
 ○KIA 타이거즈 조범현 감독이 프로야구 역대 9번째로 400승 고지에 올랐다. 조범현 감독은 지난 7일 스승 김성근 감독의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시즌 5승째를 수확하며 400승을 달성했다. 경기가 끝난 후 주장 김상훈은 숙소에서 선수단을 대표해 조범현 감독에게 400승 축하 꽃다발을 안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기에 올 시즌 새로 가세한 전태현·김희철도 선발과 중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KIA 시즌 초반 움직임은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 자원 라이트가 합류하면 더욱 촘촘한 마운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선발을 지키느라 투입됐던 전태현, 이동현 등에게 불펜 강화 임무를 맡길 수 있다. 불펜 가용성이 높아지면서 초반 오버 페이스를 했던 광정철-손영민-윤동훈 필승 계투진에도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마운드 재구성 키를 쥐고 있는 라이트는 오는 10일 입국해 메디컬테스트를 받는다. 취업비자를 위해 12일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는 라이트는 13일 팀에 합류해 KIA 맨으로 활동하게 된다. 라이트는 중간에서 한두차례 전력 점검을 한 뒤 선발진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격 인스트럭터 합류
 ○타격 인스트럭터로 KIA 타이거즈의 V10에 힘을 보탤던 마츠바라 마코토 코치가 9일 팀에 합류한다. 2008년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서 타격 인스트럭터로 KIA와 인연을 맺었던 마츠바라 코치는 오는 9일 한국에 입국해 1군 타자들의 타격 기술향상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광주시 교육감배 야구 우승 동성고 4대 1꺾어

올 시즌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 교육감배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일고는 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24회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중·고야구대회 동성고와의 경기에서 4-1로 2승째를 챙기며 1위에 올랐다.

전날 진흥고를 8-5로 제압했던 동성고는 광주일고에 패해 1승1패를 기록했다. 문체부대회 예선을 겸해 열린 중등부 경기에서는 총장종과 무등종이 각각 진흥중과 동성중을 꺾고 1승을 추가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3패에 그친 동성중을 제

위한 진흥·총장·무등중 세 팀이 2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동물을 기록한 진흥중과 무등중은 10일 오후 4시 다시 한 번 맞붙는다. 이 경기의 승자는 11일 총장중과 마지막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 미국 골프기자협회 선정 2009년 올해의 선수상 남녀부문을 각각 수상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왼쪽)와 '골프지존' 신지애(오른쪽)가 시상식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승은 해야죠” “컴백 환영해요”

‘지존’ 신지애, ‘황제’ 우즈와의 만남
 美골프기자협 올해의 남녀 선수상

‘골프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직접 만나 서로 격려의 말을 주고받았다. 신지애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세 마스코트마케팅은 “8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골프기자협회(GWAA) 선정 2009년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에서 신지애와 우즈가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주요 대화 내용을 추려 전했다. 2009년을 대표하는 남녀 선수로 뽑혀 한 자리에서 마주한 둘은 먼저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우즈가 “TV에서 가끔 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 너무 반갑다”고 말하자 신지애도 “나도 만나서 반갑고 무엇보다 마스코트마케팅에 대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우즈는 “나쁜 성격이 아니다. 워밍업 중인 것 같다”며 “올해 적어도 3승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행운을 빈다”고 격려

했다. 신지애는 “2009년 US오픈 1.2라운드에서 갤러리로 경기 모습을 지켜봤다”고 소개하자 우즈는 “정말이나. 1.2라운드 때는 성격이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3.4라운드 때 우즈 그랬느냐”고 재치있게 답하기도 했다. 우즈가 “내일(마스터스 1라운드) 경기를 볼 예정인가”라고 묻자 신지애는 “이번엔 어려울 것 같다. 다음 기회에 보겠다. 오늘 수상을 축하하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우즈 역시 “나도 수상을 축하하며 열심히 해서 많이 우승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신지애는 우즈와 인사를 나눈 뒤 “생각보다 덩치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인상과 말투가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